민족문화연구 제108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108호에는 일반 논문 7편과 해외한국학자료 해제 1편을 더하여 총 8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이번 호에 실린 일반 논문은 문학 4편, 역사학 2편, 국어학/사전학 1편 등이며, 시기별로는 전근대 1편, 근대 3편, 현대 3편으로 구분된다. 전반적으로 근현대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여기에서는 7편의 일반논문과 1편의 해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차충환의 「일본 소재 〈별숙향전〉 계열의 문헌적 성격 고찰」은 조선시대 국문소설 〈숙향전〉의 일본 소재 중요 이본들의 서지와 표현을 상호 비교하여 개별적 특징과 상호 관계를 규명한 연구로서, 완본인 나카무라본과 달리 오카쿠라본과 동양문고본은 절략본이지만 완본인 나카무라본의 제명이 "別淑香傳"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나카무라본, 오카쿠라본, 동양문고본 등을 '〈별숙향전〉 계열'으로 구별하였다. 이 연구는 실증적인 문헌학적 연구의 모범을 잘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조선시대 국문소설들과는 달리 일본에도 10여 종 소장된 〈숙향전〉 이본들의 존재가 일본인 통사의 조선어 학습서 중 하나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조선시대 국문소설이 해외에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박현수의 「동경에서의 이인화—스쳐간 만세 '전'의 풍경, 그 처음—」은 「만세전(萬歲前)」의 이인화가 스쳐갔던 동경의 장소들과 그 여정의 의미를 규명한 연구다. 특히 식민지 조선과 동경에 대한 대조적인 인식을 전제로 삼은 인식의 토대 위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울분이 솟아오르는 혹은 하층계급 사람들에게 동정을 느끼는 공간인 동시에 조선의 봉건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인 동경의 이중적 장소성을 중심으로 그러한 공간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중요 인물과 사건을 해석하면서 만세 '전'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접근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이는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도시의 풍경이 지니는 양면성 혹은 다층성을 읽어내는 문학적 분석의 좋은 선례가 될 만하다.

유현수의 「백석의 첫 문단 교류에 담긴 자의식과 시적 전략—구인회 동

인지 《시와 소설》에 발표된 작품의 의미와 그 좌표 설정을 중심으로」는 구인회 동인지 《시와 소설》에 수록된 백석의 시 「탕약(湯藥)」과 「이두국주가도(伊豆國湊街道)」를 중심으로 문단교류에서 나타나는 백석의 자의식을 밝히고, 그가 전개한 시적 전략의 재맥락화를 시도한 연구다. 필자는 비회원인 백석이 구인회 동인지에 참여한 문단 진출의 의미를 밝히는 한편, 도시 중심의 서구 근대 모더니즘 문학의 한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민족성의 복원, 무한한 시간관의 희망, 전원지향성 등을 추구했던 백석 작품의 특성을 구인회의 근대적 기획과 대립하고 조화하면서 균형과 심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백석과 구인회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백석 작품을 이해하는 다층적 차원과 복합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일정하게 공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석은 「극연좌 창립 선언에 나타난 극예술연구회의 입지와 내적 동향에 관한 연구」에서 그동안 한국 연극사에서 극예술연구회의 연장 혹은 실패 정도로만 취급되었던 극연좌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선보였다. 이 연구는 극연좌의 창립 선언서를 중심으로 극연좌 탄생의 의미와 연극사적 맥락을 다시 짚으면서, 극연좌가 극예술연구회와는 달리 1930년대 후반 조선 연극계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연극 이념에 부합하는 성격을 지녔음을 새롭게 규명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참신하다.

이지완의 「한국전쟁기 '1도 1교 방침'과 국립대학교 후원재단 설립」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등 한국전쟁기 문교부의 '1도 1교 방침'의 결과로 탄생한 국립종합대학의 설립 과정을 주로 후원재단의 재정적 측면에 집중하여 연구한 성과로서, 정부 수립 직후부터 문교부가 재단과 시설이 미비한 사립대학을 정리함으로써 지역적 편중과 학문 계통적 편향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기를 거치면서 각 지역에 국립대학교를 설치하여 기존 대학을 흡수하는 1도 1교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 지역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상호 교섭과정의 산물이 각 지역 국립종합대학이었음을 규명하였다. 특히 그것이 문교부의 일방적 정책 구현이 아니라, 각 지역 국립대학교 후원재단

으로 기설된 사립대학 및 재단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재정적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주체들의 행위와 선택이 반영되었음을 설명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는 한국 대학 형성의 역사 연구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 연구에도 공헌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김선호는 「북한군의 표창제도 형성 연구」에서 1947년 4월에 '표창장'을 제정한 이래 6·25전쟁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된 북한군의 표창제도가 형성되는 과정과 양상을 연구하였다. 북한이 소련·중국처럼 표창제도를 대중적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국가 건설과 전쟁 승리를 추구하면서, 6·25전쟁 초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개전 직후부터 수훈자가 급증할 정도로 활성화된 표창제도는 군인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군인과 가족 등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요소가 사회와 긴밀하게 결속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군사적 요소가 사회에 결합된 북한사회의 성격 이해를 위해 일독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서형국의 「백과사전 올림말 풀이의 언어적 정비 방안에 대하여—온라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경우—」는 백과사전의 미시적 풀이 구조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사전학 연구성과로서,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대상으로 삼아 올림말이 표방하는 지식에 대한 풀이 방식을 언어적 관점에서 유형화하였다. 필자는 표현 기반의 상향식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전환·성과 중심 풀이, 인과 중심 풀이, 과정·기능 중심 풀이, 구조화된 속성 중심 풀이 등 네 가지 유형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여구는 사전의 올림말 풀이가 어떤 짜임새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이번 호에는 명고(明皐) 서형수(徐瀅修, 1749-1824)의 『시경(詩經)』 주석서인 『시고변(詩故辨)』에 대한 한민섭의 해제가 실렸다.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본인 이 저술은 유일본이자 서형수의 조카인 서유구가 쓰던 원고지의 판심에 '자연경실장(自然經室藏)'이 새겨진 인찰공책지에 쓰여

진 필사본으로서 서지학적 가치를 지닌다. 해제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저술이 청나라 왕홍서(王鴻緖, 1645-1728)가 편찬한 『흠정시경전설휘찬(欽定詩經傳說彙纂)』과 비슷하게 소서(小序)와 집전(集傳)을 함께 수록한 뒤에 고금(古今)의 제설(諸說)을 취하되 편집의도에 따라 일부만 인용하는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조선후기 주자학만을 맹신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청나라의 고증학을 받아들여 의리와 고증을 함께 밝히는 조선후기 시경론의 특징적인 경향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가치가 있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는 이번 호에 실린 논문들이 주로 근현대의 다양한 소재와 주제들을 흥미롭고 심층적인 접근으로 다루고 있는 점을 주목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소략했던 전근대 시대 연구가 다음 호부터는 더욱 활성화되기를 소망한다. 앞으로 한국학과 관련된 다양한 시대, 주제, 영역을 모두 망라하는 『민족문화연구』에 훌륭한 연구자들이 더욱 흥미롭고 다채로운 성과를 투고함으로써 한국학의 미래가 더욱 풍성해질 것을 기대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